김원기(전 국회의장) 8차 구술

1. **구술자**: 김원기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30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한백정치경제연구소
6. **구술분량**: 06분 29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대통령의 국회 위상 및 역할 제고 노력

면담자 :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흔히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출범했잖아요, 참여정부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셨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의장님이 지켜 보시기에는.

구술자 :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원래 대통령 아니고 그냥 정치인으로 있을 때도 항상 그런 권위의식을 갖거나 그러지를 않고 자기 것을 꼭 강하니(강하게) 지키고 그걸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분이. 참 그분의 장점이에요. 가령 이 노 대통령, 나는 입법부가 이렇게 자립하고 자율성을 단기간 내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갖게 됐던 것도 노 대통령이 원래 소신이 그래서(였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권력이 어떻든 자기가 더, 말하자면 어떤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지나친 그 권력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폐해를 가져왔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입법부가 조금 더 권위를 갖고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대통령 자신이 그걸 밀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나는 됐다고 봐요.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화를 위한(해) 헌신한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권력구조 속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 예산도, 항상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면은 정부로서는 불편한 일이거든.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를 더 자율적인 국회를 만들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들자면

은, 건국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의장 공관에 삼(3)부, 입법부 요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임을 갖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국회의장을 할 때 제헌절에, 제헌절에 내가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해서 대법원장 내외, 또 국무총리 또는 헌재(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2)년 재임하는 동안에 안 빠고 그렇게 했어요. 했고, 그 때 내가 기억하는대로는 국회가 조금 더 입법을 하는데 충실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데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백(100)억을 더 국회에 예산을, 의원들의 연구 활동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의원 외교 그런 것을 위해서 짜여진 예산보다 백억을 더 정부에서 이렇게(지원)했어요. 그밖에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잘 했어요.

근데 결국 국회라고 하면은 정당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당하고 관계가 나중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못했어. 그것은 참, 그건 누구한테 어느 일방한테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결과적으로 정권을 뺏기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됐지요. 대통령도 이제 임기 후반에 제일 마음 아파한 것이 그거고 제일 아마 고통을, 또 갈등을 많이 겪었던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여당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많은 좌절을 느꼈어요, 대통령께서.

■ 구술자 주요이력

1937. 전북 정읍 출생
1955. 전주고등학교 졸업
1960.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65.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2004. 숭실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2005. 전북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2009. 전주대학교 명예행정학박사

1960. - 1976. 동아일보 기자
1976. 동아일보 조사부장 겸 안보통일 연구위원

1979.03 제10대 국회의원(신민당, 정읍·김제)
1979. 신민당 원내부총무
1981.04 제11대 국회의원(민한당, 정읍·고창)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정주·정읍)
1988.05 - 1990.02 평민당 원내총무
1990. - 1991. 국회 문교체육위 상임위원장
1991.08 - 1991.09 신민당 사무총장
1991.09 - 1992.05 민주당 사무총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정주·정읍)
1992.05 - 1993.03 민주당 최고위원
1992.10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 부위원장
1993.03 - 1995.02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1993.04 민주당 광주특위 위원장
1995.12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통합, 통합민주당으로 당명변경
1995.12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1996.11 - 1997.11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
1997.11 국민회의 고문
1998.05 - 1999.06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1999.06 - 2000.01 국민회의 상임고문
2000.01 - 2000.12 새천년민주당 고문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전북 정읍)
2000.12 - 2001.11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11 - 2002.05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2002.05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치고문
2002.05 - 2003.09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재추대)
2002.12 - 2003.09 새천년민주당 당개혁특위 위원장
2002.12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정치고문
2003.10 -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2003.11 열린우리당 창당
2003.11 - 2004.01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2004.02 - 2004.06 노무현 대통령 정치특보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전북 정읍)
2004.06 - 2006.05 제17대 국회의장(전반기)

3선의 평화민주당 원내총무였던 13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 초선의원 노무현을 처음 만났다. 3당 합당 이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이후에는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함께 활동했다. 1997년 15대 대선 전후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에 같이 몸담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의 정치고문을 맡았고 대통령 재임시절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나의 정치 고문이었다(138쪽)”고 기록하고 있다.